

동성애와 신학

구약성경이 말하는 동성애

들어가는 말

지난 7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9회 서울 퀴어문화축제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날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리고 퍼레이드가 진행될 때 그 근방에서는 동성애 반대집회가 열려 퀴어축제에 맞불을 놓았다. 동성애를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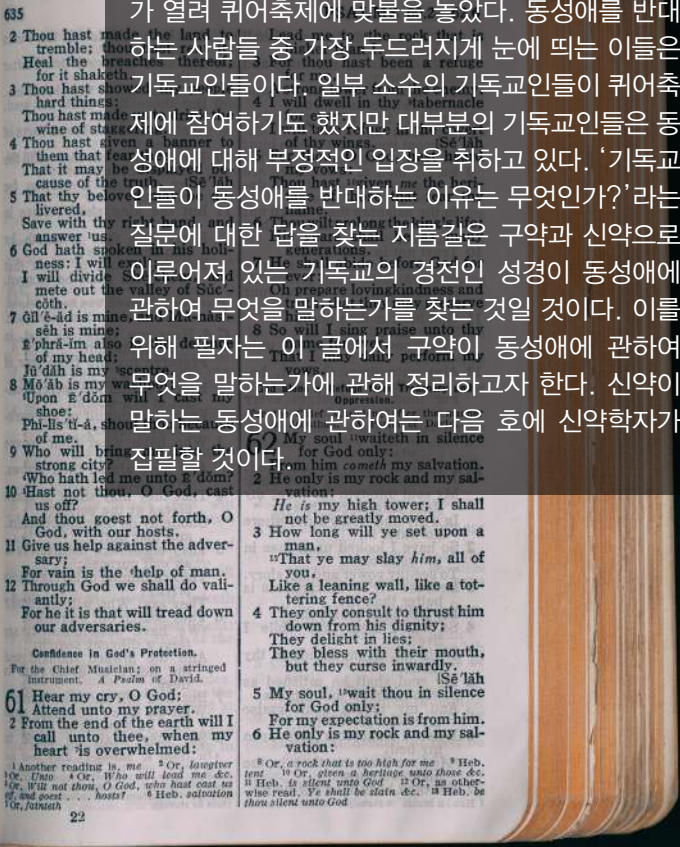
하는 사람들 중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이들은 기독교인들이다. 일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퀴어축제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지름길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동성애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를 찾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이 글에서 구약이 동성애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해 정리하고자 한다. 신약이 말하는 동성애에 관하여는 다음 호에 신학박자가 집필할 것이다.

소돔의 동성애

구약성경에 동성애를 언급한 본문은 창세기 19장 1-11절,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신명기 23장 17-18절, 사사기 19장 16-30절, 열왕기상 14장 22-24절, 15장 11-12절, 22장 43-46절, 열왕기하 23장 7절, 욥기 36편 13-14절, 에스겔 16장 48-50절이다.

동성애에 관한 구약의 첫 번째 본문은 타락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소돔의 동성애를 기록한 창세기 19장 1-11절이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있는 소돔이 기록된 것을 볼 때 동성애의 시작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다. 동성애를 뜻하는 영어 단어 ‘sodomy’도 바로 창세기 19장에 기원을 두고 있다.

창세기 19장 1-11절의 내용은 이렇다. 어느 날 사람의 모습(남자)으로 나타난 두 명의 천사가 소돔에 나타나자 소돔에 거주하던 롯이 그들을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한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자기 전에 소돔의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이 맞이한 두 남자를 내어 놓으라고 말한다. 이 때 그 집을 둘러싼 소돔의 백성들을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인 소돔인들이라고 기록한 것(창세기 19장 4절)은 소돔 땅에 동성애가 얼마나 편안하게 퍼져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개역개정에서 “소돔의 백성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안쉐 쏘돔”으로, 직역하면 “소돔의 남자들”을 의미한다. 롯의 집을 둘러싼 소돔인들은 롯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창세기 19장 5절).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로서 그 원뜻은 “알다”(know)인데 이 “야다”가 문맥에 따라 ‘성교’(intercourse) 혹은 ‘동침’을 의미할 수 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성교’의 의미로 쓰였다. 히브리어 “야다”가 ‘성교’ 혹은 ‘동침’의 의미로 쓰인 대표적인 예는 창세기 4장 1절이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에서 “동침하매”로 번역된 것이 바로 ‘알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다”이다. 이러한 소돔 사람들의 악한 요구에 롯이 자신의 손님인 이 두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말하자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한다. 이때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천사들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문 밖의 소돔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이후 소돔 땅은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의 유향과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

죄는 동성애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인가?

소돔인들이 롯에게 손님으로 온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는 요구에 롯은 그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한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악”에 관하여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성폭력을 말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곤 한다. 즉, 폭력으로 강제하지 않고 서로 간에 합의 하에 동성애를 나누는 것은 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을 언급한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롯이 말한 소돔 사람들의 악은 단순히 집단 성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스겔 16장 49-50절에서 소돔의 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위 본문의 화자인 여호와와 소돔의 여러 가지 죄 중에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창세기 19장 1-11절에서 기록한 소돔의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소돔에 퍼져 있는 동성애와 소돔 남자들이 롯의 집에 방문한 두 사람에게 강제적인 동성애를 요구한 것이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의 죄가 동성애와 강제적인 동성애 요구인데 여호와가 소돔의 죄를 나열하면서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의 죄를 생략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므로 소돔의 “가증한 일”은 바로 동성애와 그와 관련된 죄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가증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에바”인데 이 단어는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 동성애를 지칭한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토에바)이니라

(레 18:22)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 하면 둘
다 가증한 일(토에바)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 20:13)

히브리어 “토에바”는 매우 강한 혐오^{abhorrence},
^{abomination}를 의미하는 단어로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매우 혐오스러운 범죄임을 알려준다. 바로 이 “
토에바”가 에스겔 16장 49-50절에서 소돔의 죄와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따라서 소돔의 “가증한 일”을
동성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약 유다서 7절 또한 소돔의 죄가 동성애임을
말해준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
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다른 육체를 따라”의 의미는 정상적인
이성의 육체가 아닌 동성의 육체를 쫓는 것을 의미
한다. 유다서 7절에서는 소돔의 음란한 동성애가
불의 형벌의 원인이었음을 말한다. 결국 소돔의 죄
를 언급한 에스겔 16장 49-50절, 유다서 7절, 그
리고 동성애를 “가증한 일”(토에바)로 일컬은 레위
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을 고려하면 창세기 19
장 1-11절의 소돔의 죄는 단순히 집단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동성애 금지명령

동성애를 율법으로 기록한 구절은 위에서 언급한
레위기 18장 22절과 레위기 20장 13절인데 이 두
구절은 구약에서 동성애를 행하는 죄의 무거움을
말해준다. 레위기 18장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
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
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한 부분이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는 가나안의 풍속인 동
성애를 따라 행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인데 이
명령문은 히브리어 부정어 “로”와 “동침하다”를 의
미하는 동사 “샤카브”의 미완료 형이 결합된 구조
로 절대적 금지를 나타내는 구문이다. 히브리어 “
로”와 미완료 동사의 결합은 히브리어 금지명령
중에서도 최상급의 금지명령문으로 십계명의 “
-하지 말라”의 계명들이 이 구조를 갖고 있다.
히브리어 원문의 문장 순서를 보면 일반적인 금지
명령문의 순서와 달리 문장 맨 앞에 “남자와 함께”
(히브리어, “베에트 자카르”)가 위치해 있어서 여
자가 아닌 “남자와 함께” 동침하는 것의 가증함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동성애와 같은 가증한 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29절에서는 가
증한 행위를 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레위기 20장 13절 역시 동성애가 매우 무거운
죄임을 말해준다.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하
는 죄의 목록이다. 여기에 속하는 죄로는 자식을 몰
렉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죄, 부모를 저주하는 죄, 남의 아내와 간음
하는 죄, 어머니와 동침하는 죄 등이 속하는데 이
목록 가운데 13절에 동성애가 포함된 것이다. 그러
므로 13절 하반절에서는 동성애를 행한 자를 “반드
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고 기록하고 있다. 위의 두 구절의 구문과 문맥을
통해 살핀 바와 같이 동성애의 죄는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매우 무거운 죄이다.

15 And go round the world,
 down for food,
 And tarry all night,
 not satisfied,
 16 But with the love of
 Yes, I will sing
 lovingskindness
 ing:
 For thou hast b
 lower,
 And a refuge in
 distress,
 17 Unto thee, O my
 I sing praises:
 For God is my hi
 God of my men
 Lament over Defeat in B
 for Help
 For the Children
 Eduth, M
 when he str
 with Aram
 smote of I
 twelve thous
 Thou ha
 store
 4 Acc. to Sept. and
 1 Or, them that
 Make them as
 The City of Sodom

동성애 금지명령은 구약시대와 남자에 한 정되는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진영의 주장 중 하나는 동성애를 금하는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의 두 명령은 구약시대에 한정된 율법이므로 신약시대인 현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구약 율법 가운데 부정한 돼지고기를 금한 율법(레위기 11장 7-8절)이 신약시대에 더 이상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마가복음 7장 15-16절) 동성애 금지명령은 신약시대에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에서도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동성애 금지명령이 구약시대에 한정되는 계명으로 볼 수 없다. 로마서 1장 26-27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 1:26-27)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의 동성애 금지명령이 문자적으로는 모두 남성의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 동성애자^{lesbian}은 이 율법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또한 오해이다. 두 율법에서 모두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은 허용하고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와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전제하듯이 본문의 남성은 남성과 여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위의 로마서 1장 26절에서는 여자 동성애(“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를 부끄러운 일로 규정하고 있다.

사사시대의 동성애

구약에는 소돔의 동성애를 기록한 창세기 19장 1-11절 이외에 동성애를 소재로 한 또 하나의 내러티브, 사사기 19장 16-30절이 있다. 사사기 19장 16-30절의 플롯 전개는 창세기 19장 1-11절과 매우 흡사하다. 한 레위인이 그의 첩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역을 지나가게 된다. 이 때 기브아의 한 노인이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인다. 이 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말한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22절). 여기서 동사, “관계하리라”는 창세기 19장 5절의 “상관하리라”와 같은 히브리어 동사인 “야다”(알다)이다. 이 노인은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청하며 이 남자 대신 자신의 딸과 손님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말한다. 결국 손님인 에브라임 사람은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 주고 그 첩은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새벽에 돌아왔지만 결국 죽게 된다. 이에 에브라임 사람은 그 첩의 시체를 열 두 덩이로 잘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고 이스라엘 민족은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와 민족전쟁을 벌이게 된다.

동성애-타락의 바로미터

구약의 동성애 관련 두 내러티브가 각각 소돔과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동성애가 한 사회의 타락의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구약에서 타락의 사회의 상징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이스라엘 여러 지역으로 보내면서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역에서 나가서 그들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하였다(마 10:15).

9 *Because
 give
 For Go
 10 My Ge
 ness
 God wi
 upon
 11 Slay th
 forge
 *Scatter
 and I
 O Lord
 12 For the
 the w
 Let the
 pride
 And fo
 which
 13 Consum
 shall
 And let
 rulete
 Unto th
 14 And at
 turn.
 And go
 15 They s
 down
 And ta
 not sa
 16 But I w
 Yea, I
 loving
 ing:
 For the
 lower
 And a r
 distre
 17 Unto th
 I sing
 For God
 God
 Lament over
 For the Child
 Eduth, M
 when he str
 with Aram
 smote of I
 twelve thous
 Thou ha
 store
 4 Acc. to Sept.
 1 Or, them that
 Make them as
 The City of Sodom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부하는 지역은 타락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한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부하는 죄가 얼마나 큰 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가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회개하지 않은 가버나움에게, 심판 날에 소돔 땅이 가버나움보다 건지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11:23). 타락의 상징인 소돔을 언급하며 가버나움의 완악함을 비판한 말씀 이다.

사사시대는 또 어떠한가? 이스라엘의 역사 중 사사시대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다.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법이 된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시대이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웃 민족에게 붙여 심판하고 나면 그제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나 평화의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하는 것을 반복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동성애로 인하여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사사기 19장의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았다. 소돔 땅에는 하나님께서 유향과 불을 비처럼 내려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셨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진멸되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가 600명의 남은 용사가 지파의 씨가 되어 극적으로 회생하게 된다(삿 21장). 구약의 두 개의 동성애 내러티브가 공간적 타락의 상징인 소돔과 시간적 타락의 상징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했음을 볼 때 현재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은 구약의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구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동성애의 확산은 영적 어두움이 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동성애-개혁의 대상

구약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남창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개혁적인 왕들이 남창을 쫓아낸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개혁개정 성경에서 “남창” 혹은 “남색하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데쉬”로서 성전과 우상 신전에서 동성애를 유혹하던 개혁의 대상이었다. 신명기 23장 17-18절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남창의 존재가 허락되지 않으며 남창을 “개 같은 자”라고까지 부르며 경멸하고 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상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동성애를 행하는 남색하는 자가 없었어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남색하는 자가 존재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는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음을 기록한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사와 여호사밧, 요시아와 같은 왕들은 이러한 남색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는 개혁을 단행한 왕들로 기록되어 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왕상 15:11-12)

그(여호사밧)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왕상 22:46)

또 여호와와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 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왕하 23:7, 요시야의 개혁)

나오는 말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성경은 동성애에 관하여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이고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매우 무거운 죄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로 기록되어 있다. 동성애와 관련한 구약의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19장의 소돔의 죄에 관하여 소돔의 죄는 동성애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창세기 19장의 소돔의 죄를 해석하는 에스겔 16장 50절과 유다서 7절을 고려할 때 소돔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동성애를 제외하고 논하기 어렵다. 구약의 동성애 금지명령은 구약시대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신약에서도 동성애를 부끄러운 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성립되기 어렵고 구약의 동성애자가 남자 동성애자로 표현되었지만 이는 여자 동성애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문화와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남자가 대표성을 갖기 때문이다. 사사기 19장에는 창세기 19장의 소돔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동성애 내러티브가 있다. 타락의 상징 도시 소돔과 타락한 시대의 상징인 사사시대에 비슷한 동성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한 사회의 타락과 동성애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동성애자가 늘어나며 동성애 허용과 승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약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는 한국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타락의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징후이다. 구약성경은 일관되게 동성애를 하나님에게 역겨운 가증한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황선우 교수

황선우 교수는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부교수 및 총신대학교 성지언어연구소장이다.

